

설계경기 | Competition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Pohang Traditional Culture Center

당선작 / 차문송 정희원
(주.상지디앤에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235-1 외 2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주요용도	수련시설 및 문화시설
대지면적	8,311m ²
건축면적	1,730.15m ²
연 면 적	1,538.52m ²
건 폐 율	20.80%
용 적 률	18.50%
규 모	지상 1층
발 주 처	포항시
설계담당	박태영, 금창영, 이기화, 최영준, 박민규, 박지현, 이현호, 은소진

계획개념

오랜 전통을 가진 포항 덕동마을의 전통문화의 향기를 외부인들에게 알리고 체험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자 전통문화 체험관을 계획하였다.

느끼며 전통놀이마당과 안마당 사이의 전이공간으로서 사이마당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평면계획

- 체험관과 전시관의 분리로 관람객별 동선의 분리
- 숙소의 회랑 및 뒷마루에서 전통가옥의 저마공간을 체험
- 외부활동공간(전통놀이마당)과 숙소 공간(안마당)의 명확한 분리
- 전체 평면배치에서 서비스공간을 중앙에 위치하여 이동동선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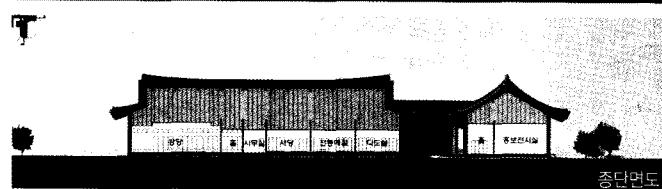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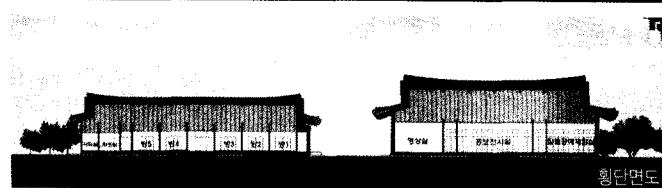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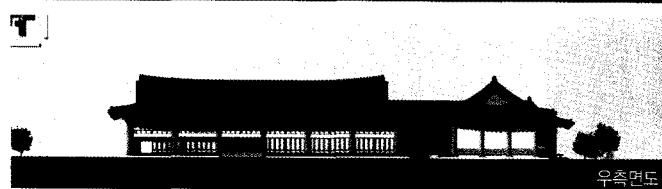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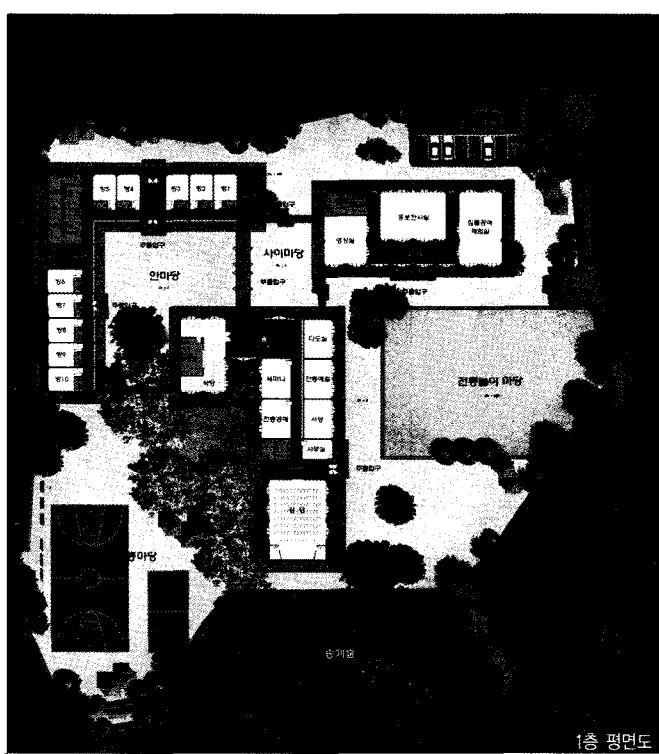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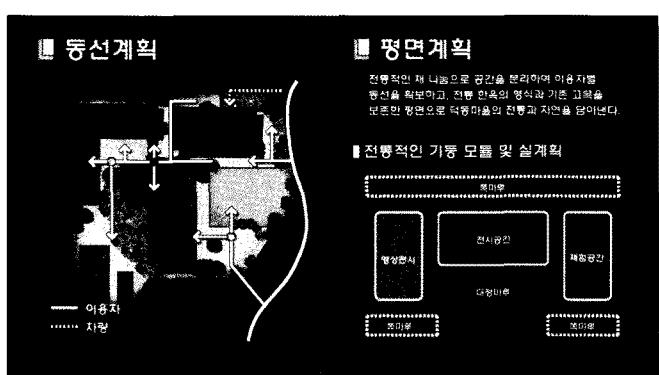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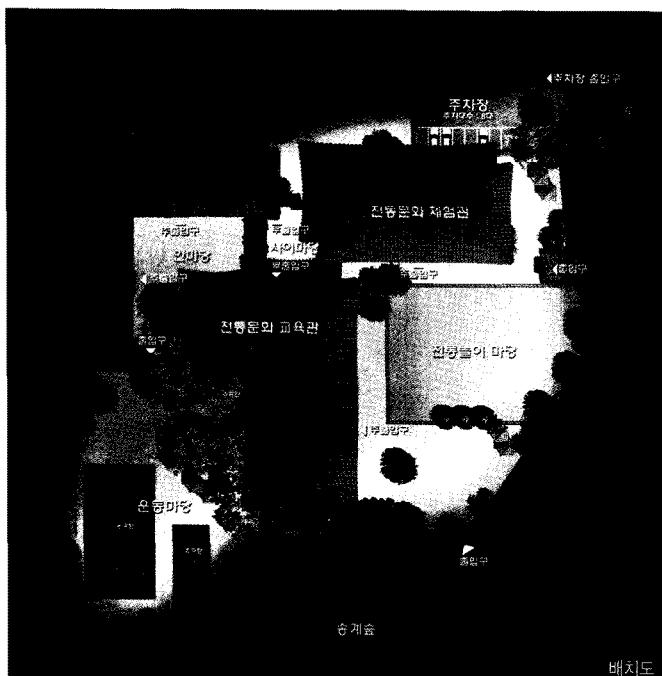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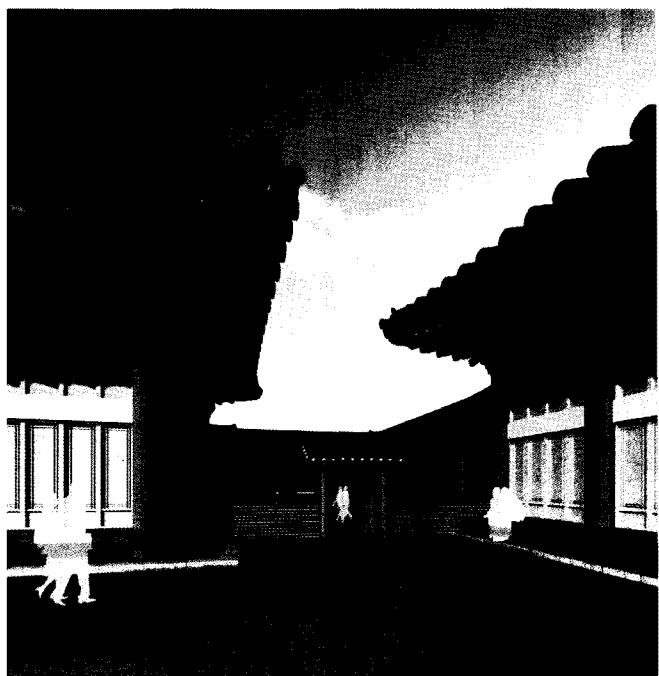
입면계획

- 전통의장요소를 도입하여 전통마을과 어우러지는 공간연출
- 중첩된 지붕으로 덕동전통마을과 주변의 능선의 선들과 하나가되는 마을의 원경 도출
- 주변의 자연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열리는 계획

외부공간배치

방문객들은 체험관과 교육관으로 둘러싸인 전통놀이마당에서 외부활동을 하게 되며 숙소의 뒷마루 앉아서는 전통 가옥 안마당의 전통조경공간을 봄으로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Pohang Traditional Culture Center

우수작 / 조외곤 정현원
(건축사사무소 조앤강)

대지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235-1와
2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주요용도 수련시설 및 문화시설

대지면적 8,311.0m²

건축면적 1,748.49m²

연 면 적 1,574.15m²

건 폐 율 21.04%

용 칙 률 18.94%

규 모 지상 1층

설계담당 강순옥, 김덕화, 심우영

덕동마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무수한 역사
를 간직하고 있는 고택들과 연계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표현하고자 했으
며, 주변 고택의 형태와 주위 산들의 형상 모
티브로 현재의 덕동마을의 자연미와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였으며,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에 순응하고 아
름다운 덕동마을과 함께 가치 있는 공간이 되
고자 계획하였다.

배치계획

건축공간_교육관과 체험관의 독립적인 공간
계획 및 유기적 연결을 고려

녹지공간_녹지 공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
어지도록 배려

주차공간_친환경 주차장으로 보행자와 차량
동선 분리

휴식공간_적절한 녹지 공간과 다목적 옥외
공간 계획

전통놀이마당 공간_다양한 전통 놀이를 경

험하고, 즐길수 있는 공간 계획

운동공간_이용자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공간 계획

평면계획

- 'ㅁ' 자의 평면 형태를 모티브로 프로그램
별 조닝 계획
- 안마당을 두어 시각적 개방감을 창출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 확보
- 다양한 진입 체계로 접근성 및 이용성을 고
려한 계획

입면계획

- 자연에 순응하며 침곡산과 자금산의 산세
를 입면 전개에 반영하여 자연의 미를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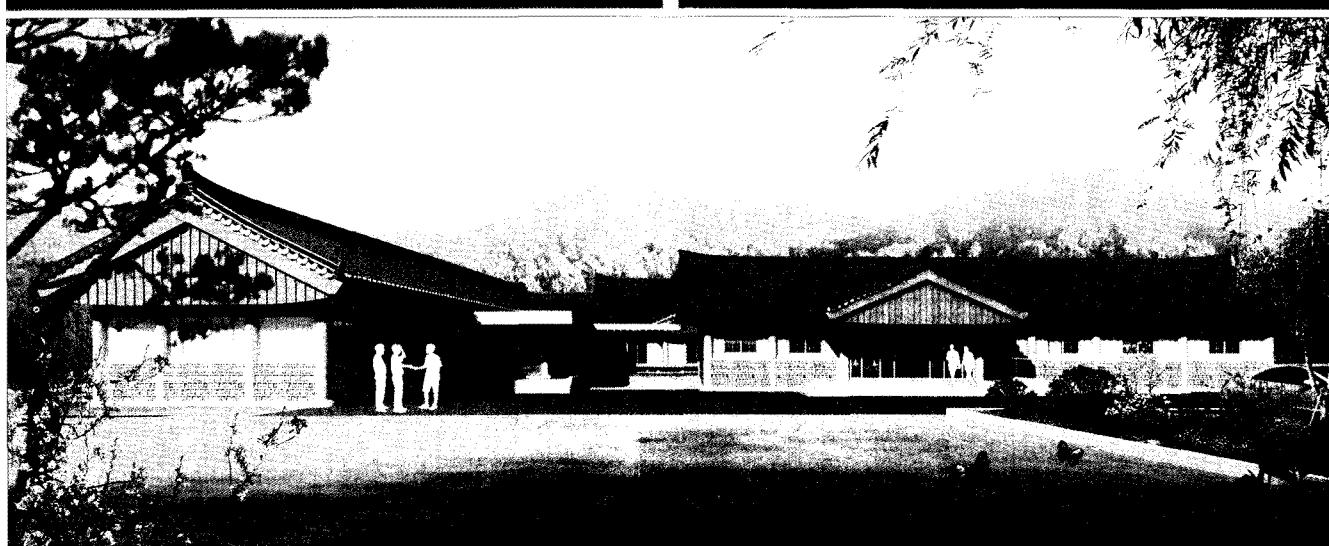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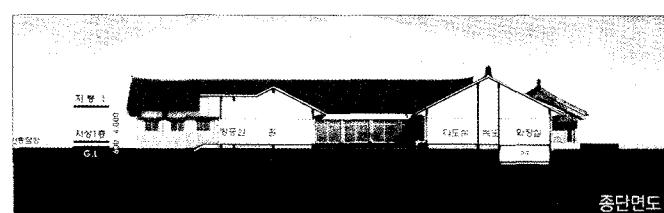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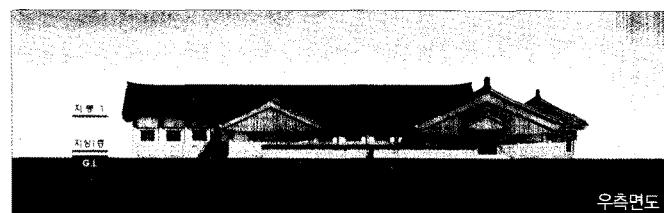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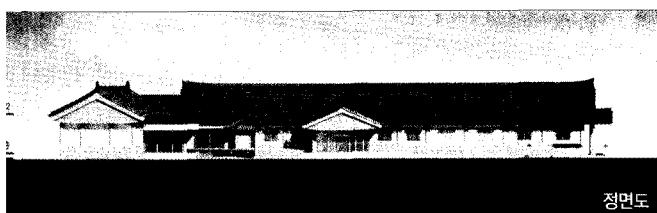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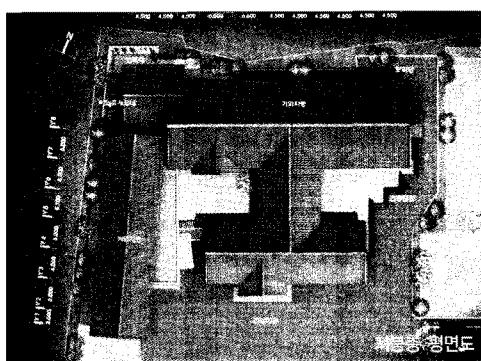
단면계획

- 완충 공간인 중정을 두어 원활한 동선 흐름
과 조망 및 환기를 고려한 계획

동선계획

- 주변의 문화재, 민속자료들과 유기적인 연
결을 통하여 마을의 상징성을 고려
- 매스의 배치에 따라 다양한 흐름을 유도하
고 열린 커뮤니티 공간 형성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Pohang Traditional Culture Center

가 작 / 이관직 製圖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235-1의 2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주요용도 수련시설 및 문화시설

대지면적 8,311.0m²

건축면적 1,861.3m²

연 면 적 1,572.8m²

건 폐 율 22.4%

용 적 률 18.9%

규 모 지상 1층

설계담당 한웅식, 최유민, 권재영, 이삼화, 김정래,
김경아, 김미순, 김윤수, 한소영, 류희완

포항전통문화체험관_단연재(簾燃齋)

흥미로운 세 단어가 현상설계를 참여하게 만들었다. 전통 문화 그리고 체험이라는 단어가 그것이었다.

'전통'이라는 단어는 그것의 의미와 더불어 현대화의 숙제를 가진 단어이다. 문화는 현재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의미하면서도 축적과 역사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것이 결합된 '전통문화체험'이라는 단어는 건축의 현대적 의미를 찾으라는 명령과도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현대 건축을 통해서 보전해야 할 문화적 내용을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본 프로젝트에 접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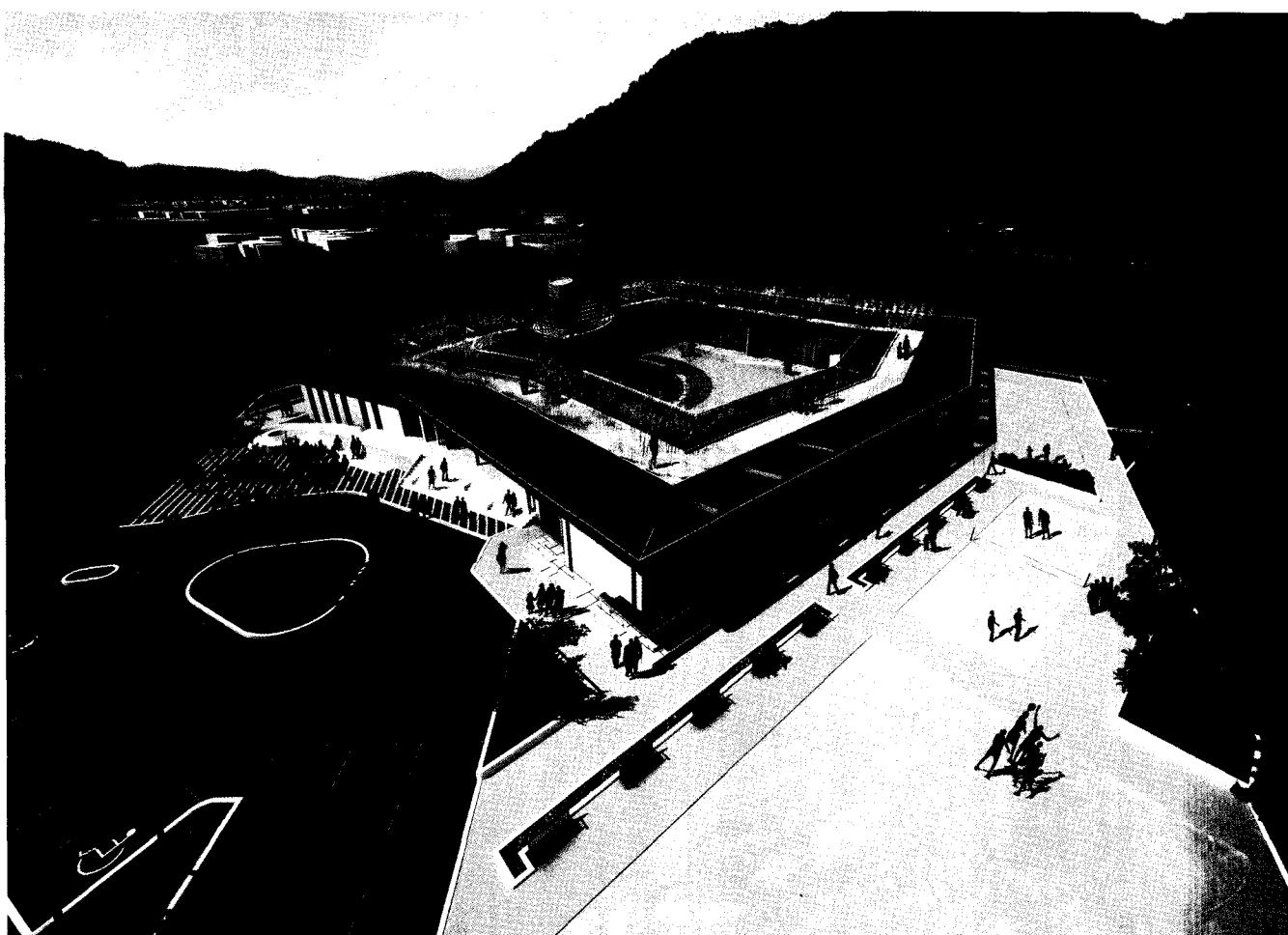
단연재는 비워진 마당을 중심으로 진입공용부분, 주거부분, 체험전시부분, 교육강의부분의 네 면을 가진 건물이다.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구상된 건물의 형태는 대지 모양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변형되어 자유로운 형상을 만든다. 네 면을 이루는 각각의 모든 기능

실은 개별적인 기능과 환경적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인접하지 않고 구분되어 톱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복도 혹은 공용 부분은 가운데의 마당에 면해 있으면서 회랑과 같은 형상으로 각각의 기능실을 연결한다.

네 면으로 연결된 건물은 지붕과 전망레벨로 올라가는 계단 공용부에 의해서 평면적인 초점이 생긴다. 이 계단 공용부는 지푸라기 전통공예의 구법으로 짜여진 일종의 소쿠리로 쌓여있다. 력비공모양과 같은 평면 형상의 소쿠리는 전통적인 짚공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또한 사각 모양의 평면에 활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이 계획에 있어서 단면에 관한 건축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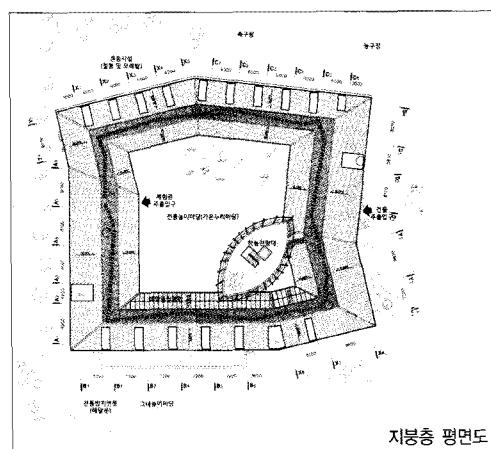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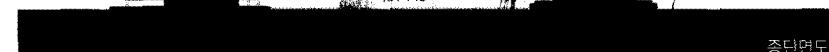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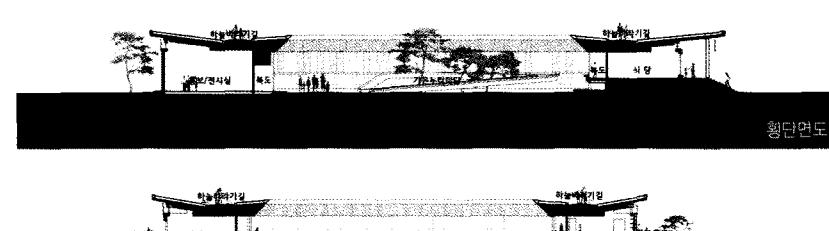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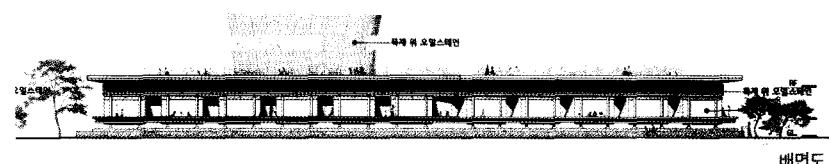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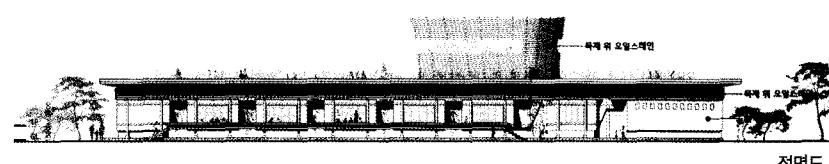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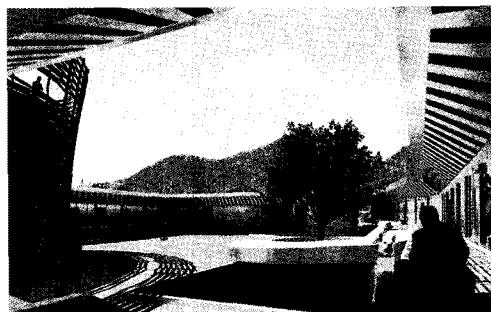
설계 지침에서 요구된 기와지붕은 전통적인 지붕의 경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구배는 중심에서 밖으로 치켜올려진다. 날아가는 듯한 새의 날개를 닮았다. 그런데 절곡된 중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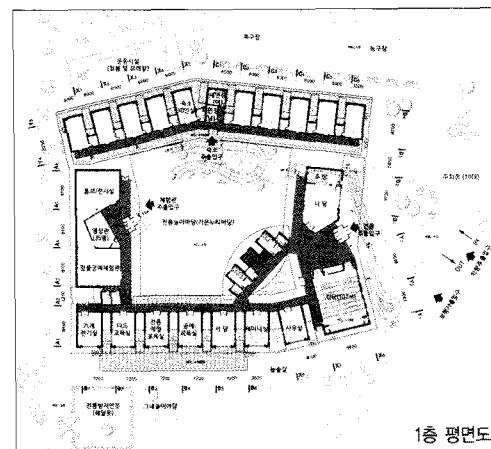
는 ‘ㅁ’ 자로 함몰되면서 옥상 녹지가 되고, 억새가 자라게 될 것이다. 역시 ‘ㅁ’ 자 평면 모양의 억새 녹지는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면서 특히 가을에는, 억새꽃으로 새로운 은빛 풍광의 지붕을 연출할 것이다.

처마의 장점과 경사지붕의 날렵한 가벼움이 전통적 이면서 새로운 형식의 기와 건축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모든 공간은 단면 크기에 따라서 레벨과 위치가 변화 있게 구성된다. 주거부분의 바닥은 높고, 상대적으로 천정은 낮아진다. 전시장의 바닥은 낮고 천정고는 높아진다. 다양한 레벨에 접근하기 위한 건축적인 장치는 또 하나의 조형적인 표현이 되고, 더불어 무장애공간 계획에 기여한다. ■



지붕층 평면도



1층 평면도

